

Instant comment

[장중 시황] 매일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다 (6/23)

- KOSPI, KOSDAQ 장중 5.5% 이상 급락하며 양 지수 매도 사이드카 발동. 이는 아시아 주식시장 내에서도 한국에만 국한된 상황. 13시 40분 현재 대만 가권 -0.5%, 상해종합 -0.4%, 닛케이225 -1.6% 등락 중.
- 양호한 흐름의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매크로 지표 변동성도 양호한 상황. 시장금리, 유가 급등락 없음. 조정의 원인은 반도체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기술적 조정.
“SK하이닉스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 랠리 이어지는 가운데 이평선과의 괴리를 커졌고 RSI(14일) 또한 76.2로 과매수 구간 진입. 언제든지 기술적 조정 가능하나 추세적 훼손 아니라는 판단(전일 마감시황)”
- 현재 펀더멘털과 매크로에서 KOSPI 상승 추세 훼손할 문제가 발견되었다 판단하지 않음. 5,6,7,8천 포인트 돌파 이후 늘 있어왔던 차익실현 매물 출회.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 필요. 물론 PCE 경계감이나, 마이크론 실적 경계감, BoA의 연내 금리 3회 인상 전망 등 후행적 명분 붙이기는 가능하겠으나 이것이 금일 아시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급락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음
- 결론은 “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이며 9천피 돌파 이후 생겨야 할 통과 의례”. 26년 KOSPI 100% 이상 상승하며 4천~ 9천 pt까지 지수 1천 포인트 단위 최초 돌파 이후 평균 6.25거래일 이내 5% 이상의 일일 낙폭 꾸준히 발생. 평균 6.04%. 금일은 6월 18일 증가 9,064pt 이후 4거래일 되는 날이라는 점 상기. 낙폭도 증가한 시가총액 고려했을 때 평균 수준에 불과

KOSPI 구간 돌파 이후 단기간내 일일 5% 이상 급락은 지속되어 왔음. 돌아보면 매수 기회였다

KOSPI 지수 구간(pt)	최초 돌파일	최초 돌파일 증가(pt)	조정일	조정 소요 거래일	조정일 낙폭 (%)
5,000	2026-01-27	5,085	2026-02-02	5	-5.26
6,000	2026-02-25	6,084	2026-03-03	4	-7.24
7,000	2026-05-06	7,385	2026-05-15	8	-6.12
8,000	2026-05-26	8,048	2026-06-05	8	-5.54
9,000	2026-06-18	9,064	2026-06-23	4	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Instant comment

- 특히 SK하이닉스, 삼성전자, SK스퀘어, 삼성전기의 현재 KOSPI 시가총액 Top4의 KOSPI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전일 증가 기준 63.2%에 육박. 해당 대형주 중심 쏠림 현상은 지속 심화되며 오늘과 같은 해당 종목들의 낙폭 확대는 KOSPI 지수 전체 급락을 야기. 그러나 해당 종목 4개의 합산 26년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KOSPI 전체의 71% 차지. 비이성적 쏠림은 아니라는 판단

KOSPI Top4 시가총액 비중 : 쏠림 현상 심화되며 63% 상회



자료: 에프앤가이드 Quant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- 전략) 한국시간 25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 확인 후 반도체 이익추정치 재차 상향 기대. EPS 6월 상승폭 둔화됐으나 이는 실적 모멘텀 둔화되는 분기 말이기 때문. 그럼에도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PER 8배 미만 구간으로 재진입. 1,500원대의 원/달러 환율 효과와 호수출 데이터, 지속되는 메모리 가격 강세 고려시 2분기 호수출주 호실적 및 그로 인한 KOSPI EPS 재상향 기대감 여전한 상황. 호실적 반도체, IT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 재차 강조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이재원)

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